글로벌문화콘텐츠 제44호, August 2020, 73-98

글로벌문화콘텐츠

ISSN 2005-6176

유라시아 문화지형도 내 한민족예술의 다문화적 접변 양상 고찰: ‘홍범도 장군’ 콘텐츠의 OSMU 방식을 중심으로*

박영은[1]

The Study of Multicultural Assimilation of Korean Art in Eurasian Cultural Topography: Focused on OSMU methods of “General Hong Beom-do” contents

Young-Eun Park[1]

본고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문화지형도의 패러다임 속에서 홍범도 장군 콘텐츠의 다문화적 변용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더불어 홍범도에 관한 ‘옛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OSMU 방식을 통해 ‘새 이야기’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콘텐츠는 홍범도 자신이 구술한 것을 받아 쓴 「홍범도 일지」를 근간으로 한 태장춘의 희곡 <홍범도>, 홍범도 사후에 그를 기리고자 했던 전우 이인섭의 노력으로 추진되었던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홍범도의 인간미에 주목한 문금동의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왔다. 이러한 자료에 입각해 본고에서는 고려인 예술계에서 추진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록문학과 연극 등의 콘텐츠와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홍범도 장군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문화예술계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야기 자체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이 된 오늘날의 문화현상에 맞추어 홍범도 장군의 스토리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가공하고 대중화하는 산업의 가능성과 함께,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문 자산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홍범도 루트’ 발굴을 통한 관광 상품으로의 가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유라시아, 홍범도 장군, 스토리텔링, 태장춘, 김세일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multicultural transformation of General Hong Beom-do contents within the paradigm of the Eurasian cultural topography that encompasses Russia and Central Asia. In addition, the study traces the process of “old stories” related to Hong Beom-do being transformed into "new stories" through a variety of OSMU (One source multi-Use) methods based on storytelling techniques. The contents of "General Hong Beom-do" have been transformed in various ways such as through Tae Jang-chun's play <Hong Beom-do>, which is based on the「Hong Bum-do’s Journal」that was written through Hong Beom-do’s personal oral statement, Kim Se-il’s novel <Hong Beom-do>, which was promoted by a fellow soldier Lee In-seop who wanted to honor him after Hong Beom-do’s death, and Moon Geum-dong’s novel <Father and Hong, beom-do>, which focuses on the humane aspects Hong Beom-do and his father based on childhood memories. Based on these materials, the study examines contents such as documentary literature and plays related to General Hong Beom-do that was promoted in the world of Russian Korean artists, as well as the trends in the world of cultural arts, which have extensively promoted General Hong Beom-do in Korea during recent times. Furthermor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S1A6A3A02024971)

투고일: 2020년 6월 20일, **수정일:** 2020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0일

[1]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irispen@hanmail.net

www.kci.go.kr

in accordance with today's cultural phenomenon, where stories have become a product of huge profits, the study proposes the possibility of the industry that reprocesses and popularizes General Hong Beom-do's story into various cultural cont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a tourism product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Hong Beom-do route" that extends to Korea, Russia, and Central Asia based on the humanistic assets that inherit his spirit.

Key wrod: Eurasia, General Hong Beom-do, storytelling, Tae Jang-chun, Kim Se-il

1. 유라시아 문화지형도에서 본 ‘홍범도 장군’ 콘텐츠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조직된 지 100년이 되는 2019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해였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무명 항일독립투사들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홍범도(1862~1943) 장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항일의병 의병장과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활동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50여년간 조국해방을 위해 무장독립투쟁을 펼친 독립 운동가였던 홍범도 장군은 한반도는 물론 해외 한인들, 특히 고려인사회에서 크나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고아 출신의 가난한 평민으로서 부패한 군인・지주・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를 몸소 경험하고 처단해나갔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의 전형이었다. 또한 그의 올곧은 성격과 따뜻한 인품 역시 그가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1)]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지만, 조국의 광복을 끝내 보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땅에 묻힌 그의 유해 송환 문제는 항상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왔다. 2019년 4월 21일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인 애국지사들 유해의 고국 송환을 약속한데 이어 홍범도 유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9월 23일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Nigmatulin Nurlan Zairullayevich) 하원의장과 만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조속한 유해 봉환이 이루어져 양자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2)]

과거에도 소련과 한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난 뒤, 1995년 홍범도 장군을 한국으로 봉안하기

1) 반병률,『홍범도 장군: 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한울아카데미, 2019, 236-238쪽.
2)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481 (검색일자: 2019년 11월 30일)

www.kci.go.kr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도 잠시였고, 고려인 동포사회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모국의 아픈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북측이 홍장군의 유해 봉환사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측은 '홍범도 장군은 평안도 태생이기 때문에 모국으로의 유해봉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이 아니라 평양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서울로의 유해봉환을 반대했다. 그러나 남과 북을 동시에 모국으로 생각하던 고려인들은 남측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북측의 논리 또한 수긍함으로써 홍장군의 유해를 남도 북도 아닌 카자흐스탄에 계속 두는 방안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카자흐스탄 정부가 받아들여 양측이 실무협상을 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2020년 3.1절 기념식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를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해봉환은 잠정 연기된 상황이며, 추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계획이다.[3)]

홍범도 장군의 삶의 궤적에서도 드러나듯이, 러시아 연해주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펼치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열들의 족적을 추적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CIS권역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그들 삶의 흔적을 조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평양에서 출생한 홍범도는 1908년 40세 되던 해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이 그의 무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반평생을 CIS권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실제로 홍범도는 1910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했고, 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연추에서 이범윤 등을 만나 김충렬・조화여의 감금과 자금탈취를 따진 후 다시 추풍(秋風)으로 가서 국내진공을 위한 의병자금모집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독립군의 총사령이 되어 약 400명의 독립군으로 1개 부대를 편성하고 국내에 잠입했으며, 700여명의 독립군을 지휘하며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20여명을 사살하는 등 그때까지의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였다.

나아가 1937년부터 홍범도의 삶의 공간은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와 연결된다. 그는 1937년 동포들과 함께 크즐오르다로 이주를 당한 후 고려극장의 수위로 일했고,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인 1942년 4월 이후에는 몸담고 있던 고려극장이 우스토베로 옮겨가자 극장 경비를 그만두고 정미공장 근로자로 일을 하다 조국해방을 앞둔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서 삶의 주요한 전환점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특히 '연해

3)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1955 (검색일자: 2020년 5월 15일)

www.kci.go.kr

주' 땅이 항일무장투쟁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과 애국지식인들이 활약했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 극동・연해주를 '독립투사들의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해주에서는 3・1운동 이후 독립을 향한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문화적 움직임'이 강하게 용솟음쳤으며,[4]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이후에는 그 정신이 고려극장 활동 문예인들의 창작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졌던 고려인 문화예술인들의 항일의식 및 관련된 대중문화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이 이면에는 고려극장이 제정러시아와 소련,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존립해 온 만큼, 국내 연구자들이 고려극장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1932년 고려극장이 러시아 원동에 창설된 이후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던 세월동안 동서냉전으로 인해 고려극장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차단당했던 것이 60년 이상이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고려극장을 둘러싼 일부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 우리의 뿌리 깊은 레드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레닌 사상에 입각해 '붉은 군대(赤軍)'와 독립군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일제가 백군을 지지하면서 연해주에 출병하여 신한촌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홍범도는 적군에 적극 가담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21년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차 동방근로자대회'에 초청받기도 했던 홍범도는 그곳에서 레닌을 직접 면담하고 '레닌으로부터 홍범도에게'라는 이름이 새겨진 싸총(마우저 권총), 100루블의 상금, 그리고 적군 모자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민족의 독립과 소비에트 혁명의 승리를 등치시켰던 홍범도는 전 세계 무산자 계급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명이 가져다 준 소연방의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때문에 장군에 대한 기록 곳곳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홍범도는 소련에 대한 애국적 열정에 넘쳐, 주당위원회에 찾아가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거부되자 자기는 늙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총을 쏠 줄 안다면서 병마개를 세워놓고 백 보 밖에서 총을 쏴서 명중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당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에게 후방에서의 노동도 전선을 위한 것이기에 하던 일을

4) Ким, И.,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θнер>, 1982. // 리길수, 「조선극장」, 『오늘의 빛』, 알마아따: ≪자수싀≫, 1990, 169-173쪽.

www.kci.go.kr

계속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에 대한 홍범도의 애국심은 ≪레닌의 긔치≫ 신문에 기고한 글 「원쑤를 갚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범도는 1919년 10월 추풍지역에서 6명의 러시아빨치산들과 연합투쟁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조국' 소련을 위해 전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나는 지금 늙엇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지금 파시쓰트들과 전쟁을 한다. 젊으니들! 모도 무긔를 잡고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서라!"[5]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려극장의 여배우 리함덕은 노령으로 전선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자 몹시 실망했던 홍범도는 당시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열린 조국수호 행사를 찾아다녔는데, 그의 이런 행보는 고려극장 배우들의 독소전쟁을 후방에서 열렬히 후원했던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6]

소비에트를 또 다른 조국으로 인식했던 홍범도의 행보는 사실상 우리가 그를 평가할 때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행동에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는 선뜻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단초가 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운동은 추앙하면서도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왔던 부분, 즉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오래도록 조명받지 못했던 그를 둘러싼 고려인 문화예술계의 노력에 대해 본고에서 관심을 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행히 3・1운동 100주년이 된 2019년, 국내에서는 오랜 침묵을 깨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다양한 공연물을 제작하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를 소환하며 활발하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OSMU(One source multi Use)'라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이 현상이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되는 문화 산업의 특징과 연접하게 된 것이다.[7] 이에 본고에서는 홍범도에 관한 '옛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OSMU 방식을 통해 '새 이야기'로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유라시아 공간의 독립운동 투쟁사에 비해 고려인 예술인들의 독립정신이 기억되어 온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연구가 부재한 만큼, 고려인들이 독립운동을 통해 역사를 응시했던 원천 텍스트와 그 재생의 방식을 더듬어가며 그것의 예술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야기 자체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이 된 오늘날의 문화현상에 맞추어, 본고에서는 '홍범도 장군'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방식의 문화콘텐츠로 재가공하고 대중화하는 문화산업의 가능성 역시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

5) 홍범도, 「원쑤를 갚다」, ≪레닌의 긔치≫, 1941년 11월 7일자, 4면.

6) Ким, И.,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p. 34-35.

7)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21-22쪽. //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2007, 17-9쪽.

www.kci.go.kr

2. 「홍범도 일지」를 근간으로 탄생한 극작가 태장춘의 연극 <홍범도>[8)]

현존하는 기록 상, 홍범도 장군의 삶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첫 번째 콘텐츠는 고려극장의 극작가 '태장춘'[9)]의 연극 <홍범도>였다. 그리고 이 연극의 일차 토대가 된 것이 홍범도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기록 「홍범도 일지」였다. 태장춘은, <조선극장>의 설립초기부터 배우 겸 문학부장을 일했던 작가이다. 그는 시와 소설 뿐 아니라 희곡 작품도 많이 창작하여 공연에 올렸다. 홍범도는 자신의 항일무장 투쟁활동을 메모 식으로 기록한 '목필책'을 갖고 있었고,[10)] 이를 기초로 태장춘이 자신의 아내 리함덕에게 홍범도의 구술 증언을 받게 하여 정리한 것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홍범도 일지」의 원형이다.

홍범도와 태장춘이 실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1937년 연해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어 고려극장이 크즐오르다로 이주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70세여서 이미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는 힘들었던 홍범도 역시 1938년 4월 이곳으로 이사해 자그마한 집을 한 채 사서 연금생활을 하게 된다. 김세일의 소설에서는 "홍범도가 크즐오르다로 이사해 온 것은 여기에서 자기의 여생을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보내려는 것이었다. 이 도시에는 <레닌기치> 신문사가 있었고 조선사범대학이 있었고 '조선극장'[11)]이 있었다"[12)]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조선극장 총연출가였던 태장춘은 홍범도가 식구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했다. 그런 이유로 홍범도를 극장에서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인 수위 직책을 맡아 보게 하고 봉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연금에 보태어 살게 해 주었던 것이다.[13)]

---

8) 발표 당시의 제목은 '의병들'이었고, 홍범도 사후에 '홍범도'로 개재되었다.

9) 극작가 태장춘(1911-1960)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15세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장 등 많은 일터를 전전하며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1931년 해삼어업대학 노동학원을 졸업한 뒤 1932년 조선극장 창설 당시부터 희곡작가로서 극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21살 나던 해 상연된 "기근의 들판"(원동 노동청년극장)에서 주역을 맡아 호평을 받을 정도로 연극에 천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노동청년극장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을 모태로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창립된 고려극장에서 그는 리함덕, 리길수, 연성용, 이정림, 채영 등과 함께 극작가로 활약했다.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와 함께 고려극장 역시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옮겨졌고, 그 후 '크즐오르다→우쉬또베→크즐오르다→알마틔'로 이주를 계속하는 동안 태장춘은 시종일관 고려극장의 핵심적 인물로 활약했으며, 소련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 대열에 자리잡게 되었다. 정상진,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211-212쪽.

10) 홍범도가 직접 쓴 일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인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고려인 작가인 김기철은 1989년 4월 11일자 ≪레닌기치≫에 기고한 「홍범도 장군의 전투경로와 쏘련에서의 만년 생활」에서 "장군에게는 손수 쓴 일기책이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희곡 「홍범도」와 장편소설 『홍범도』가 쓰였다.

11) '고려극장'의 원 이름이 '조선극장'이었다.

12) 김세일, 『역사기록소설 홍범도』, 제5권, 제3문학사, 1989, 243쪽.

13) 위의 글, 243-244쪽.

www.kci.go.kr

홍범도가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이주한 지 한 달쯤 지난 뒤부터 태장춘은 홍범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극 <홍범도>의 희곡은 태장춘이 홍범도와 친히 담화하면서 지은 것이었다.

당시 태장춘의 지인들은 "지금 조선 사람들이 일본간첩의 누명을 쓰고 이 먼 중아시아까지 끌려와 있는 처지에 조선의병대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희곡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태장춘을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레닌기치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던 시인 조기천이 찾아와 "사실만 왜곡하지 않는다면, 제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운 역사적 인물은 언제나 거인으로 남아 있기에 이런저런 사정을 보지 말고 작품창작에 착수하라"라며 격려해주었다는 것이다.[14] 조기천의 판단대로 홍범도를 소재로 한 희곡은 소비에트 고려인들을 위해 주효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고려인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탄생한 연극 <홍범도>는 1942년 초연에 이어 1947년에, 그리고 1957년에 다시 공연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60년에는 맹동욱의 연출로 새롭게 각색된 희곡으로 다시 공연되었다고 한다.

실존했던 인물을 '영웅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그려낸 연극 <홍범도>는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당시 태장춘이 지니고 있던 항일의식과 함께 당대 고려인 문단의 기대지평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공연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연극에서 홍범도의 가족(부인, 두 아들)은 물론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실존인물들이라는 점은 무엇보다 극 내용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요소이다. 특히 이 희곡에는 의병대장 홍범도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일본군 헌병대장 야마도와 일진회의 괴수 원흥・재덕 등이 홍범도의 가족을 이용하여 홍범도를 귀순시키려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15] 희곡 <홍범도>는 원래 3부작(농민 두목 홍범도의 자연적, 무의식적 투쟁을 그려낸 현재의 <홍범도>가 1부작이고, 볼셰비키의 영향 아래 붉은 빨치산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2부작으로, 레닌과의 만남 이후에 이상적이며 분명한 혁명가이자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을 3부작으로 하고자 했음)으로 기획되었는데, 태장춘의 때 이른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다.[16]

태장춘은 일제 침략과 식민화, 그로 인한 디아스포라의 고행을 몸소 체험했기에 이 경험을 통한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문학과 연극을 통해 그 정신을 표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희곡 <홍범도>를 기획하던 단계에서부터 실존 인물 홍범도에게서 많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작가에게는 일종의 족쇄였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홍범도의 행적으로부터 극적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

14) Ким, И.,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p. 36.

15) 본고에서 활용한 태장춘의 희곡 <홍범도>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국제한인문학회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희곡문학 작품집: 까레이스키 공연예술의 꿈』, 국학자료원, 2012, 155-236쪽.

16) Ким, И.,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p. 37.

www.kci.go.kr

한 편의 전기(傳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역시 이에 연유한다.

태장춘은 원래 3부작으로 홍범도의 생애를 그려낼 생각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이른 죽음으로 1부작인 <홍범도>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홍범도>가 창작된 1942년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한창이었고, 홍범도가 대적하여 싸운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작품이 각광받을 만한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다. 당시 <홍범도>는 희곡 미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팩트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다시 말해 홍범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무대 위에서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메시지의 전달을 사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17]

홍범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는 '함경도 지방에서의 의병 항쟁기'로 평가되는데, 희곡 <홍범도>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장춘이 주인공인 홍범도를 대면하여 그로부터 직접 구술을 받아냈고,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의 조직에 관한 그의 주문을 성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18]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희곡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19]

조규익 교수는 희곡 <홍범도>는 몇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희곡이나 연극의 관습적 성향을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우선 연극 <홍범도>는 살아있는 주인공과 작가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체험을 작품화시켰다는 점에서 작품 자체가 실화극 내지는 역사극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홍범도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의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해 민중들 사이에 전설적 영웅으로 자리를 잡은 존재였으나, 주인공의 위업을 과장하지 말고 주변 인물들의 활약상을 부각시켜 달라는 홍범도 자신의 주문을 이행한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최소화시키고, 작품의 사실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잡던 백두산 포수'[20]라는 홍범도의 이미지를 이야기 전개의 미학적 요소

17) 조규익, 『CIS 지역 고려인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270쪽.

18) 홍범도는 극작가 태장춘에서 이 희곡이 자기와 같이 전투를 치었던 동지들에게 더 많은 주안점을 둘 것을 항상 주장했으며, 정확한 사실만을 쓰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예술적 상상을 가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태장춘의 아내인 리함덕의 회상에 의하면 '태장춘이 흥미로운 희곡의 전개를 위해 사건을 조금만 변형하자고 제안했을 때조차 홍범도는 화를 내면서 어떤 희곡적 상상도 거짓으로 여기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Ким, И.,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p. 35.

19) 조규익, 앞의 글, 240-241쪽.

20) 홍범도의 뛰어난 포수로의 명성은 김세일의 소설에서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세일, 앞의 책, 1권, 131-132쪽.

www.kci.go.kr

로 드러나지 않게 군데군데 삽입함으로써 관객이나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당시 소련의 고려인 예술계에서 <홍범도>가 이룩한 사실주의는 시대적 요구에 성실히 부응한 연극미학의 모범적 선례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다. 연극 <홍범도>를 위시한 당시의 연극 기법은 홍범도가 연극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코 과장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만을 쓸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는데, 주변의 인물들을 부각시켜 달라고 주문한 사실은 한 발 앞서 나간 리얼리즘이 당대 연극미학의 주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관점이다.

사실, 초창기 고려극장의 희곡작가들이나 연출가들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창립자인 스타니슬랍스키의 이론을 수용한 단서를 보여주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소련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의 연극기법이 고려극장의 연극미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배우의 외면 연기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배우는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의 내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배우는 무대 위에 드러나는 인물의 삶을 실생활에서처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같은 장면에 등장하는 다른 연기자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은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한 점인데, 고전극에서 소외되었던 '동시대의 삶이나 현실 사회의 모든 것들' 즉 심적 태도・물리적 배경・물질적 조건 등을 재현하는 작업은 당시 리얼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는 주장이다.[21]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연극 연출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타당한 관점이다. 하지만 1942년에 무대에 올려진 이 연극은 홍범도의 영웅성보다는, '의도적으로'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의병들의 활약상에 주안점을 둔 작품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보통 홍범도라고 하면 신출귀몰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일본에 대항한 독립군 장군으로서, 생애 말기를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보냄으로써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영웅적으로 추앙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선입견을 비껴가는 서사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89년에 <한국연극>에 이 희곡이 실릴 당시 평론가 유민영이 "이 작품은 짓밟힌 민중의 저항의식을 묘사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떤 계급의식에 경도되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22]으로 평가한 점이나, "이 작품이 항일투쟁사에서 전설적인 인물 홍범도를 영웅으로 신비화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해하는"[23]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21) 조규익, 앞의 글, 243-244쪽.
22) 유민영, 「희곡평/소박한 역사기록극」, 『한국연극』 제155호, 1989년 4월호, 29쪽.
23) 이정선, 「연극으로 재현된 까레이스키와 그 삶의 명암: 중앙아시아 고려인 희곡문학 작품에 붙여」, 『중앙아시아 고려인 희곡문학 작품집: 까레이스키 공연예술의 꿈』, 국제한인문학회 엮음, 국학자료원, 2012,

www.kci.go.kr

관점에 입각할 때 태장춘의 희곡 <홍범도>를 단순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작품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자신을 모티프로 한 예술을 창작하는데 있어서도 자신보다는 동료전우들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홍범도의 겸손한 성품이 태장춘을 통해 반영되었다는 점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홍범도 사후'에 그를 영웅시했던 소설이나 최근 국내에서 제작된 홍범도 공연물과 비교해보아도 확연히 부각되는 특성이다.

3. 이인섭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한 김세일의 역사기록소설『홍범도』

중앙아시아에서 태장춘이 창작한 희곡 <홍범도>가 상연되긴 했지만, 홍범도가 고려인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인 작가 김세일(세르게이 표도로비치)이 소설『홍범도』를 <레닌기치>에 연재하면서부터이다. 김세일에게 홍범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창작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홍범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애국 혁명투사 이인섭이다. 이인섭이 김세일을 지목한 것은 김세일이 '한글과 러시아어를 잘 아는 작가'였기 때문이었다.

이인섭은 홍범도를 기념하고 기록하는 일에 가장 열성적인 인물이었다. 이인섭과 홍범도는 같은 평양 출신으로 국내에서 의병운동에 참여했고 망명한 이후 반일혁명운동에 참여한 경력도 같았다. 홍범도 사후 8주기가 되는 1951년 이인섭은 홍범도 분묘 수리사업을 같이 추진했던 홍범도의 전우 박성태와 심상원으로부터 홍범도의 항일혁명역사를 쓰라는 권고를 받고 홍범도에 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마침내 이인섭은 1958년 4월, 당시 카자흐스탄공화국 우슈토베에 있었던 고려극장의 책임서기이자 배우였던 김진으로부터「홍범도 일지」를 입수하게 된다.[24)]

이인섭은 1958년 후반에『홍범도 장군』상편을 탈고하고 다음해에 하편을 끝냈는데,『홍범도 장군』의 집필을 위해 자료수집을 시작한 1951년부터 약 8년이 지난 1959년에 탈고한 것으로 분량이 341쪽에 달한다. 모두 2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907년 11월 해외망명을 분기점으로 상편과 하편의 두 권으로 나누었다.『홍범도 장군』은 홍범도의 유년・청년 시절부터 국외망명과 독립군 활동, 자유시참변과 동양혁명자대회, 러시아 원동지역에서의 사회주의건설 참여활동, 1937년 중

440-441쪽.

24) 고려극장의 배우이자 책임자였던 김진은 우즈베키스탄 안지잔에 거주하고 있던 항일혁명가 출신 이인섭의 부탁을 받고 1958년 4월16일 <리함덕판 일지>를 이인섭에게 전달한다. 이인섭은 홍범도, 이동휘, 김알렉산드라 등 항일영웅들의 전기 집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진이 보내준 <일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저명한 조선의병대장 홍범도 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인섭은 고려극장 측으로부터 받은「홍범도 일지」등사본을 1958년 6월 10일자와 8월 15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정서하고 필요한 주석을 달았다.

www.kci.go.kr

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까지 홍범도의 항일혁명운동과 활동을 '정치소설' 형식으로 쓴 전기이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인섭은 1961년 3월 「홍범도 일지」[25](고려극장 등사본, 이인섭 등사본)와 자신이 쓴 『홍범도 장군』 등 관련 자료들을 발송하며 김세일의 집필 작업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는 1965년 10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레닌기치>에 124회 연재되었다. 당시 이 작품은 당시 생존해 있던 항일혁명투사, 특히 홍범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을 같이했던 이들을 비롯하여 고려인사회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연재 중에도 생존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과 작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주었다. 한국에서 출판된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는 신문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26]

김세일의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는 작가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후 집필되었지만, 독립운동사의 주요 역사를 서술하는 긴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고려인 문학사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긴 장편소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적지 않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가 김세일이 홍범도를 소비에트 체제에서 강건하게 행동하는, 소위 '영웅 만들기' 관점에서 그의 행동을 기술한다는 점이다. 물론, 무산 계급으로 태어나 러시아의 적이기도 했던 일제군과 전투를 펼쳤고, 이 때문에 소비에트를 위해서는 백군과도 맞서 싸우는 혁명가로 평가하기에 홍범도의 이력은 무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소비에트 체제를 추종하면서 일제와 맞서기 위해 붉은 군대와 손잡은 홍범도의 모습은 홍범도의 입을 통해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가 로령지로 가는 목적은 거기 가서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오. 우리는 거기 가서도 왜놈들과 싸울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세계 피압박 민족들의 독립 운동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쏘베트 붉은

---

25) 「홍범도 일지(일기)」의 원본은 분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홍범도가 손수 쓴 '일지' 원본의 행방에 대하여 고려인작가 김기철과 김세일은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다. 김기철은 김세일이 장편소설 『홍범도』를 탈고한 후 김세일(실은 그의 부인)이 빨래하다가 분실했다고 했고, 김세일은 김기철에게 분실한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현재로서 최초로 작성된 「홍범도 일지」(즉 '홍범도본' 또는 '태장춘본')는 김기철이 빌려준 제3자나 김세일이 갖고 있다가 분실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궁의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 원본을 옮겨 적은 여러 필사본들이다. 우선 태장춘의 부인인 배우 리함덕이(그리고 또 한 사람이) 원본을 베껴 쓴 것이 있는데, 고려극장 당서기 김진이 1958년 당시 홍범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던 항일투사 이인섭의 요청을 받아 베끼도록 한 것이다. 이를 '이함덕 필사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은 1958년 4월 17일 이함덕 필사본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 거주하고 있던 이인섭에게 건네주었다. 이인섭은 '이함덕 필사본'을 1958년 6월 10일과 8월 15일 두 번에 걸쳐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인섭은 후일 모스크바의 김세일을 찾아가 소설 홍범도의 집필을 권유하면서 이함덕 필사본(그리고 자신의 필사본 가운데 하나)을 건네주었다. 반병률, 앞의 글, 217-218쪽

26) 김세일이 홍범도에 관한 전기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이 작품 제1권의 "작가의 말"에 기재되어 있다. 김세일, 앞의 글, 1권, 9-21쪽.

www.kci.go.kr

주권이 서있는 로씨야로 간다는 걸 반드시 아고 있어야 하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면 붉은 주권 군대들과 손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게 될 것이오...[27]

평론가 임형모도 지적하고 있듯이, 농민의 아들이라는 무산계급이라는 출신성분과 함께 이후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로 의식이 성장하는 홍범도의 경우는 김세일의 펜에서 영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근사한 이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28]

소설 후반부에서는 홍범도 부대가 자유시 참변이라는 객관적 정세로 인해 다시 만주에서 의병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연해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모습이 묘사된다. 이에 김세일은 대부분 농민과 노동자로 구성된 홍범도 부대원들이 점차 소비에트 사회에 안착해가는 과정 기술에 방점을 이동시킨다.[29] 이 과정에서 소설은 홍범도 부대를 필두로 한 조선인들이 연해주를 해방하여 소비에트를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레닌이 홍범도를 만나 표창을 하는 모습까지 조명하고 있다.[30] 여기서 공산당에 가입하고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꼴호즈를 운영하는 홍범도의 모습과 함께, 작가는 자신들과 같은 빈천자들에게 좋은 땅을 거져주는 "'소비에트의 위대성'과 '레닌의 거룩한 사상'"[31]에 대한 찬양이 홍범도의 입으로 표출되는 서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극동 연해주를 해방시키고 소비에트 체제 건설에 공헌한 조선인들에게 포상으로 땅이 지급되자 이를 활용해 홍범도 부대는 농업조합을 경영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연해주를 또 다른 고향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32] 나아가 이는 홍범도 부대원들을 비롯한 연해주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소비에트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부하게 된 단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가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그의 삶을 사회주의 혁명정신 속에서 확장하고자 했다는 것은 레닌 예찬론자였던 그가 공산주의 교육매체인 <레닌기치>에 이 소설을 발표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여기서 홍범도는 소위 '소비에트의 영웅'이 되어 고려인의 입지와 존재감을 강화시켜주는 매개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홍범도를 흠 없는 완벽한 인간의 전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를 소비에트 체제 구축의 이념적 프로파간다인 '공평한 좋은

27) 김세일, 위의 글, 3권, 275쪽.
28) 임형모, 「홍범도를 매개로 하는 체제 옹호의 정치 서사 연구 - 장편소설 홍범도에 투사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3), 2018, 257쪽.
29) 소설에서는 연해주에서 농지사업과 다양한 계몽사업을 했던 홍범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김세일, 앞의 글, 제5권, 87쪽.
30) 김세일, 위의 글, 4권 235-240쪽.
31) 김세일, 위의 글, 4권, 257쪽.
32) 박영은, 「러시아 극동 한인문학의 정초(定礎)와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노어노문학』, 29(4), 2017, 214-216쪽.

www.kci.go.kr

세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선지자이자 인도자로 묘사하는 것에서 극대화된다.[33)]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홍범도』는 소비에트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소설, 다시 말해 김세일의 세계관과 작가의식, 그리고 그 체제에서 생존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환경에 따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념에 맞추어 윤색된 측면이 적지 않다.[34)] 이는 김세일이 1912년 3월에 연해주에서 출생했으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고급당학교를 수료했고, 소비에트 체제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찬양에 고무되었던 작가라는 점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그의 소설에서 '홍범도'는 단순히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고려인 사회의 영웅이자 소비에트 체제의 영웅으로까지 확장되는데, 여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작가의 욕망과 전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제된 집단이주의 기억을 안고 있는 고려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소거하고 우수한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들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점이 소설의 미학성에는 의문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이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작품이라는 점과 고려인사회에서 홍범도 장군을 민족의식의 기념비로 우뚝 세웠다는 점에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는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4. 소설에서 영상·공연물로 변용된 '홍범도 콘텐츠'의 OSMU 방식

김세일의 소설이 출판된 이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콘텐츠는 문헌텍스트부터 여러 공연물까지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연해주 출신으로 스탈린의 강제이주 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문필활동을 했던 문금동(1912~1992)의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1987) 역시 작가가 홍범도를 소재로 하여 자신의 가족사를 기록한 작품이다.[35)] 소설에서 작가는 자신의 유년시절을

33) 소설에서는 "홍범도는 사사로운 일에나 공공한 일에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공정한 판결이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여서 동료들 사이에서 위신이 높았다"는 서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다. 김세일, 앞의 글, 1권 131, 279쪽.

34) 무엇보다 임형모는 동일한 제목의 세 판본에서 '강제이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형모, 「홍범도를 매개로 하는 체제 옹호의 정치 서사 연구 - 장편소설 홍범도에 투사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 262-264쪽.

35) 문금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고송무 교수는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명희의 제자 가운데서 빛을 여태 보지는 못했으나 혼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금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912년 연해주 뿌질롭카 촌에서 문친일의 아들로 태어나 조합의 청년학교를 나왔다. 조명희가 그에게 작가의 길을 걷도록 권고를 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어온 뒤 여러 가지의 일을 했고, 전쟁 후는 타쉬켄트시 부근 끼로브 명칭 꼴호즈에서 일했다. 1963년부터 타직스탄의 두샨베에서 살다가 최근에는 타직스탄 기싸르 구역에서 살고 있다. 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태이나 장편소설 『인정루』와 실화기록 『아부지와

www.kci.go.kr

배경으로 아버지 문승열을 비롯한 초창기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과 독립군들의 삶과 행적을 그리고 있다.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이 작품은 “나는 어렸을 때 보낸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36]는 말로 시작된다. 즉 <아부지와 홍범도>는 작가의 기억을 복원해가는 방식을 통해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금동은 소설 속에서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세밀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연해주 뿌질롭카 주변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부대의 갖은 만행과 군사적 활동내용, 조선독립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조사, 군사훈련의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금동의 부친 문승열은 육성촌에 주둔하는 일본 군부대로 잡혀간다. 체포된 이유는 독립군과의 비밀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승열은 모진 고문을 당하여 사지를 못 쓰게 될 정도로 고초를 겪다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와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즉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던 극한의 상황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작가는 고려인들의 삶을 구원해 주었던 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베풀었던 것과 같은 ‘정(情)’이 담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 대표적인 구도로서 작품의 주요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버지와 홍범도이며, 이 두 인물은 ‘인간애’를 통해 유사한 성품의 인물임을 강조한다. 문금동은 자신의 아버지와 홍범도 장군이 속마음까지 터놓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점을 홍장군이 아버지에게 건네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재현하고 있다.

> 이 사람아, 이만하여도 자네는 제 집에서 제 새끼를 끼고 사니 나보다 좋은 세상일세. 나 같은 것은 제 식솔들을 다 일본 놈들의 불 속에 집어넣고 해외로 동서남북 돌아다니며, 낮이면 수림(樹林)속에, 밤이면 수풀 속에 헤매고 다니니 마음이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내 죽기 전에 나의 목적으로 성공하려 하네. 자, 자네가 부어주는 술은 단술이니 같이 술을 드세. 동생과 같이 술을 들어 우리가 서로 형제결의 하고 그간 섭섭하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가 만난 상봉주이니 다들 드시게.[37]

소설에서 문금동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갈 데 없는 고려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오자 청년들이 하나둘 독립단에 가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습이 기술된다. 문금동의 아버지가 정이 넘치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홍범도 일행이 아버지를

홍범도』를 썼다.”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179쪽.

36) 문금동, 『아부지와 홍범도』, 현대문화사, 2017, 1쪽.

37) 문금동, 앞의 글, 83쪽.

www.kci.go.kr

찾아왔을 때는 돼지까지 잡아 극진한 대접을 하는 등, 음식은 삶의 주요한 순간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재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38] 이들의 '음식 나누기'는 단순한 일상행위가 아니라 암흑한 시절에도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범도를 둘러싼 여러 설화담에서도 반복되는 모티프이다. 이처럼 소설에서 아버지와 홍범도는 인간적인 따뜻함 뿐 아니라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대표주자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작가에게 아버지와 홍범도 장군은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겸비한 이상적인 인물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단순히 전기적 차원에서 본 작가의 기록 수기라는 점을 넘어서서,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는 문금동 삶의 궤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함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인들의 역사적 정체성과 생활사를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연해주의 지리, 환경적인 특징뿐 아니라 당시 고려인들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무수히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작가는 면밀한 관찰과 기억을 토대로 그 시절의 음식 나누기, 장례 등 삶과 죽음의 생활사와 이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가치들은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금동의 글쓰기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사를 넘어 고려인들의 정신문화 유산을 재정리하는 작업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인들은 일제의 감시 체제에서 벗어나야하는 문제뿐 아니라 소비에트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난제에도 봉착해 있었다. 때문에 이 소설은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받았던 고려인들의 명예회복 차원에 그 의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9] 이러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소설의 사건전개나 인물형상화에 미학성이 다소 결핍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상화함으로써 예술적 긴장감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문금동이 <아부지와 홍범도>에서 시도한 직설적인 글쓰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김세일이나 문금동과 같은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비에트 시민'으로서의 의식은 소비에트 문화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홍범도 장군의 삶의 궤적을 오랜 세월 추적하며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이동순의 민족서사시 <홍범도>에도 주목해보아야 한다. 총 10권으로 출판된 이 서사시는 홍범도라는 영웅 의병장의 생애를 통해 새롭게 정리된 한국현대사의 재구성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38)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 79권, 2018, 274쪽.
39) 김현주, 앞의 글, 282-284쪽.

www.kci.go.kr

이 저술의 중요성은 기존의 현대사 자료들에서 청산리대첩에서 홍범도 장군의 활동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오로지 김좌진 장군과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활동만 부각시키는 것에 반해, 실제적 자료조사와 증언을 통해 이 역사적 승전은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마침내 성취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청산리전투에서 활동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문학적 재현을 잘 드러내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40]

[사진 1] 연극 “날으는 홍범도 장군” 포스터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억과 존경은 2019년 기념비적 역사 분위기에 부응하여 그의 이야기가 음악극으로 또 영화와 연극으로 부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6월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연극팀의 초청공연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 홍범도장군기념회 주관으로 상연되었다. 이 작품은 2019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연극축제인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의 해외초청 공연이었다. 연극의 총감독 및 연출은 김 엘리나, 각색은 리 올레그와 이 예브게니, 작곡은 윤 올레그, 무대감독은 체르노와 율리야가 맡았다. 홍범도 역에는 최 로만, 김 분대장 역에는 김 그리고리, 유 분대장 역에는 김 세르게이, 최월향 역에는 리 나탈리아 등 고려극장 소속배우들이 캐스팅됐다.[41] 이번 공연의 특징은 실제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고려극장의 고려인 3, 4세 배우들이 연극대사를 우리말로 하나하나 외우고 감정까지 오랫동안 연습해 무대에 올렸다는 것이다.

40) 이동순, 「홍범도 1~10」, 국학자료원, 2003.
41)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63 (검색일자: 2020년 1월 5일)

www.kci.go.kr

연극 <날으는 홍범도 장군>은 1942년 고려극장에서 초연한 태장춘의 작품 <의병들>을 개정・각색한 작품이다. 이 연극은 고려극장의 수위장인 홍범도가 방금 극장에 입사한 새내기 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 홍범도 장군이 무장독립투쟁을 하면서 겪었을 고뇌와 갈등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본 연극은 탁월하게 빨리 달렸던 홍범도의 특징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중들의 입으로 전해져왔던 설화담 뿐만 아니라, 이후 창작된 김세일의 소설에서도 여러 차례 묘사되고 있다.[42] 홍범도는 일본군에 대항할 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면전을 펼치기보다 게릴라 유격전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그는 전쟁하면서 매복하고 일본군을 유인하여 치고 빠지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감행했다.[43] 설화와 소설에서는 홍범도의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전승시켜 왔으며, 연극은 홍범도의 이러한 특징을 부각시킨 것이다.

[사진 2] 영화 "봉오동 전투"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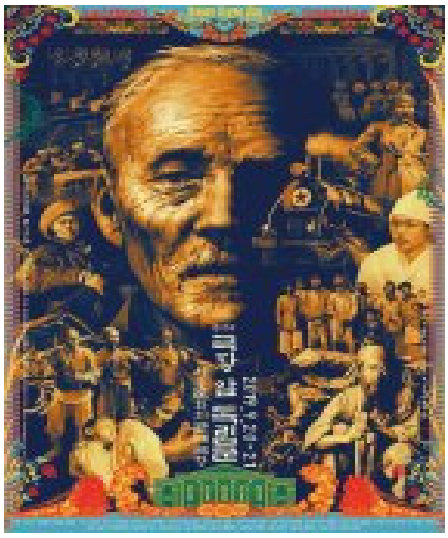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대규모 승리를 쟁취한 전투를 묘사한 영화 <봉오동전투>도 OSMU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영화의 전면에 홍범도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던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는 점을 영화에서는 암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봉오동 골짜기에서 1920년 6월 펼쳐진 전투에 대해 영화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당시 일본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월강추격대를 필두로 독립군 토벌 작전을 시작했고, 독립군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항일대도를 휘두르는 비범한 칼솜씨의 해철(유해진)과 발 빠른 독립군 분대장 장하(류준열) 그리고 해철의 오른팔이자 날쌘 저격수 병구(조우진)는 빗발치는 총탄과 포위망을

42) 김세일, 앞의 글, 1권 124쪽, 5권 228-229쪽.
43)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홍범도 서사담 연구」, 『민속연구』, 제36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 111-120쪽.

www.kci.go.kr

뚫고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하며 당시를 재현하고 있다.

원신연 감독은 이 영화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궈낸 첫 승리의 역사, 봉오동 전투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소회를 전하고 있다.[44] 그는 그동안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름 없는 영웅들을 들여다본 이야기는 많지 않다며, <봉오동 전투>는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 독립군이 되어 이름 모를 영웅으로 살아간 시간과 그들의 승리가 바로 봉오동 전투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진 3]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의 포스터

2019년 9월 20일~21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극장 앞 독립군>이라는 음악극도 공연되었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41년 만에 처음으로 산하 7개 예술단이 모두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45]였던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촌의 고려극장에서 극장 수위를 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홍범도는 1937년 연해주를 떠나 그해 11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이후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에서 연출 겸 극작가로 일하던 태장춘의 주선으로 극장의 경비로 일한 바 있다. 이렇듯 <극장 앞 독립군>에서는 극장 문지기로 생을 마친 홍범도 장군과 조국을 잃은 난민 신세로 수천

4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18010005762 (검색일자: 2019년 10월 15일)

45) 세종문화회관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통합 브랜딩 공연은 서울시 7개 예술단(서울시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극단, 서울시오페라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이 모두 참여, 무대에만 300여명의 출연진이 오르는 대규모 작품이었다.

www.kci.go.kr

킬로 떨어진 그곳에 극장을 짓고 공연을 올렸던 고려극장 배우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음악극의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고연옥 작가는 거대한 서사나 영웅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라며, 평범한 사람이 포수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카자흐스탄에서까지 조선말로 공연을 만들었던 고려극장 배우들의 삶과 홍범도 장군의 말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며,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극장에 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다.[46] 고려극장은 1932년 고려인 예술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창설한 해외 동포사의 가장 오래된 극장이다. 그 후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현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극장은 홍범도 장군이 생의 말년에 수위로 근무했던 곳인 동시에, 지금까지도 고려인 동포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사진 4] 〈극장 앞 독립군〉 공연 장면

이 작품의 모티프는 1942년 고려극장에서 초연된 태장춘 작 <의병들>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각색되어 있다. <극장 앞 독립군>은 홍범도가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을 지키며 말년을 보내는 시점이 표면상의 서사 기준점이 되고 있다. 생전 처음 극장에서 배우들을 만나게 된 홍범도는 자신을 알아보는 한 청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청년은 장군의 이야기로 대

46)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view/1209780 (검색일자: 2019년 10월 15일)

www.kci.go.kr

본을 쓰고 언젠가 고려극장에서 이 작품이 공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조선의 글과 전통을 지키려 애쓰며 위태롭게 운영되던 극장은 카자흐스탄 공산당 정부로부터 폐관 조치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극장의 마지막 공연으로 청년의 작품, '날으는 홍범도 장군'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정한다.

<극장 앞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자신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상연하게 하는 내용의 메타극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이를 통해 '연극 속의 영웅 홍범도'와 '현실속의 초라한 독립군인 홍범도'를 대비시킨다. 때문에 극 안에서는 1900년대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활동을 했을 시절과 1940년대 극장 수위로 있던 시절로 시공을 오가게 된다. 여기서 1900년대와 1940년대로 40여년의 시간을 두고, 조선과 중앙아시아라는 공간, 전쟁터와 극장이라는 상반된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음악'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에는 24곡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90년대 대중가요, 모던 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펼쳐진다.[47]

태장춘의 희곡 <의병들>과는 달리 이 음악극은 홍범도 장군의 영웅 만들기, 그를 통한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음악극의 첫 장면에서 나레이션을 통해 홍범도의 출생부터 의병장으로서의 활동,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의 승리, 연해주에서의 농장경영,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1943년 76세로 사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나아가 태장춘의 희곡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 작품을 새롭게 창작하게 된 역사・문화적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첫째, 태장춘의 희곡과 달리 <극장 앞 독립군>에서는 1937년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실상, 즉 소련의 조치에 의해 갑작스럽게 횡단열차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면서 고통 받았던 고려인들의 참상이 고려극장 연극인들의 입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이것은 소련 당국의 서슬파란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1942년 당시에는 태장춘이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금기어였기 때문일 것이지만, 2019년의 작품에서는 고려극장이 이 음악극의 배경으로 등장함으로써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던 고려극장이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끊임없이 폐관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극의 얼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1942년의 원작과는 달리 <극장 앞 독립군>에서는 새내기 극작가라는 설정으로 태장춘

47) 나실인 음악감독은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에 대해 "뮤지컬에 가까운 음악극이다. 다양한 음악이 펼쳐지는 것은 극의 재미를 위한 필수요소다. 1900년대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시점이 펼쳐진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함과 극장만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정서가 잘 전환될 수 있게 음악에서 융합될 수 있게 신경 썼다.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들이 작품의 음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22622416&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2019년 10월 15일)

www.kci.go.kr

이 극 속에 직접 등장한다. 그리고 이 극작가는 자신은 오래전부터 홍범도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연극을 통해 각성시키고 싶다며 홍범도에게 허락을 구한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는 고려인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 즉 이곳 극장에서 새내기 극작가가 쓴 '날으는 홍범도 장군'의 리허설이 진행되기 전에 연극 <춘향전>이 상연되는 장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이 음악극의 연출가는 춘향을 연기했던 배우와 홍범도 아내 옥녀를 연기했던 배우를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여, 변사또로부터 절개를 지킨 춘향과 일본군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은 옥녀를 병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고려인들이 민족혼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연했던 <춘향전>의 서사에 상응하여 <극장 앞 독립군>을 제작한 전략, 즉 이 작품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국가적 차원의 역사의식과 애국심 고취 프로젝트와 연접되어 제작되었던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태장춘의 희곡에서는 홍범도가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의병들을 규합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한편, 본 음악극은 홍범도의 죽음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고려극장의 폐관과 궤를 함께 하고 있어, '홍범도의 운명'과 '고려극장의 운명'이 등치되는 프레임을 형성하도록 극적으로 개작하고 있다. 이 음악극은 1940년대가 실질적인 배경이지만, '연극속의 연극'이라는 메타극 형식을 통해, 배우들의 대본 리허설 과정속에서 홍범도 장군이 의병활동을 했을 때의 과정과 사건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고려극장은 우리의 심장이다"라는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민족정신의 상징인 고려극장의 폐관은 민족해방을 위해 일생을 던진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제작자들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홍범도 장군의 기상과 정신, 혹독한 시절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던 그의 숭고함을 부각시켰던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영상, 공연물이 제작된 해였다. 물론, 이러한 대대적 작업이 남긴 과제 역시 적지 않겠지만, 2019년에 거둔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성과는 민족의 독립투사를 일상의 대중문화공간으로 견인하는, 한국의 공연예술사에서도 또 다른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다.

5. 유라시아 공간을 넘나드는 '홍범도 루트'의 문화적 복원을 꿈꾸며...

전술한 바와 같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콘텐츠는 홍범도 자신이 구술한 것을 받아 쓴 「홍범도 일지」를 근간으로 한 태장춘의 희곡 <홍범도>(원제 의병들), 홍범도 사후에 그를 기리고자 했던 전우 이인섭의 노력으로 추진되었던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

www.kci.go.kr

의 아버지와 홍범도의 인간미에 주목한 문금동의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등의 문헌텍스트로 다양하게 변형되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인 예술계에서 추진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록문학과 연극 등의 콘텐츠와 아울러 국내에서 '홍범도 장군'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문화예술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활발해진 이런 동향에도 불구하고, 홍범도를 주제로 한 진정한 미학적 의의를 갖춘 소설이나 대하드라마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는 여전히 필요하다. 사실 홍범도는 남과 북의 역사교과서와 개설서에서 전봉준 등과 함께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많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통합의 과제 앞에서 그의 행적은 더욱 귀중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라도 홍범도 관련 자료들에 대한 발굴, 수집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더불어 구소련 각 지역의 개인 또는 국가의 공식 문서관이나 영상기록관 등 다양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 역시 지속적으로 조사・발굴되어야 한다. 현재 행방조차 찾을 길 없던 「홍범도 일지」의 원본('홍범도본' 또는 '태장춘본')을 비롯해 그가 쓰던 권총, 당책, 옷, 소지품들, 고려극장에서 연극 <홍범도>의 공연 당시 활용되었던 소품들과 기록들을 수집・정리하는 것 역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최근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홍범도의 개인의 인생사에 대한 것은 평민출신의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의병대장이라는 것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홍범도 자신이 회고한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그의 생애에는 1869년 평양의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금강산 신계사에서 1년간 수련하며 민족의식과 반일감정에 눈뜨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홍범도가 자신의 첫 아내가 된 옥녀를 만나게 된 과정이나 그녀와의 러브스토리, 옥녀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등은 영화나 대하드라마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

홍범도의 서민적인 성품[48], 여성에 대한 존중[49], 가족보다도 조국을 위하는 공명심[50]의 이미

48) 홍범도 장군의 서민적 성품은 그와 관련된 일화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는 홍장군 스스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극빈 속에서 머슴 생활까지 했고, 노동자와 농민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는 수준 높은 무장투쟁 지도자로서 최고의 직책을 맡았을 때에도 하급병사의 처지와 속마음을 늘 자상하게 헤아렸던 분이었다. 이동순, "홍범도 장군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전형(典型)", 논객닷컴,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16 (검색일자: 2020년 1월 5일)

49) 여성에 대한 홍범도의 존경심은 김세일 소설에서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홍범도는 조선의 녀성들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범도는 탄실이와 옥녀를 조선 녀성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 알아왔다. 인민 속에서 태어난 조선의 녀성들은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 알아왔다. 인민 속에서 태여난 조선의 녀성들은 다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옛적부터 조선 녀성들 속에는 계월향, 론개, 설죽화 같은 녀걸들이 많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범도는 조선 녀성들의 의지가 굳다는 것도 잘 알았다." 김세일, 앞의 글, 1권, 260쪽.

www.kci.go.kr

지를 부각시키는 것 역시 영상물에서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범도가 새 부인 "리인복"[51]과 그녀가 데려온 손녀 예카테리나와 함께 1929년 연해주 중-러 접경지대인 항카 호숫가에서 찍은 하단의 사진에서 유추되는 이미지, 즉 부성성과 모성성・권총과 꽃의 이미지・강인하면서도 순수한 정신의 결합은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콘텐츠 역시 풍부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사진 5] 홍범도와 두 번째 아내 리인복, 손녀의 모습

나아가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홍범도를 둘러싼 설화 역시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이

50) 홍범도 장군의 아내는 일본군부대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맏아들 홍양순은 의병투쟁의 과정 중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막내아들 홍용환은 몸이 약해서 만주의 지인에게 위탁해 있던 중 결핵으로 사망했다. 홍범도 장군의 가족은 이렇게 조국독립투쟁의 세월 속에서 해체되었지만, 홍범도는 "모든 독립군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전투에 임하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군인들에게 한 사람도 조문하러 오지 말라고"(김세일, 앞의 글, 3권, 207쪽)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51) 1924년에 홍범도는 옥녀를 잃은 지 18년만에 리인복과 재혼하게 되는데, 김세일의 소설에서는 리인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홍범도의 동료들-필자)은 이웃 마을에 나이 한 50되나마나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남편은 빠르찌산에 다니다가 전사하고 시가 보낸 외딸도 딸애를 하나 낳고 죽다나니 그 여자는 그의 손녀를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탐구해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성명이 리 인복이고 지식도 좀 있었다. 그는 조선 글도 좀 알고 로씨야 글도 좀 읽는 여자였다. 성질이 침착하면서도 활발하였다. 동리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리 인복씨의 특성은 마음이 매우 어질고 인사성이 밝다는 것이다." 김세일, 앞의 글, 5권, 89쪽.

www.kci.go.kr

될 수 있다.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52]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문필가 리용득이 중국의 조선인 지역, 구체적으로는 홍범도 장군 의병이 크게 활동한 연변 특히 안도현 명월구일대 로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를 찬미하는 전설・민요들과 일제에 대한 풍자와 아유를 담은 작품들을 수집 정리한 결과물은 홍범도를 둘러싼 민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풍부한 보고(寶庫)가 될 수 있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설화, 전설, 노래 등은 그의 애국애족과 일제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을 찬미가송한,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홍범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콘텐츠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의 역사에 숨겨진 인문자산 발굴은 후대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역사가 공통으로 겹쳐지는 시기의 사건을 '영화'로 제작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홍범도 장군의 이미지나 '홍범도 루트'를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것 역시 스토리텔링의 현대적 변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의 국내 송환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던 크즐오르다를 비롯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독립투쟁과 그 흔적이 남긴 곳을 '홍범도 루트'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홍범도 장군이 고려인 동포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서거 후 몇 년 만에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의 묘비를 세웠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이곳 고려인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이다.

북만주와 연해주와 카자흐스탄의 모든 곳이 홍범도의 활동무대였듯이, '홍범도 루트'야말로 한민족의 미래 지향적 DNA를 확장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한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를 잇는 문화관광 상품의 부가가치 역시 창출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그들의 고뇌와 행적이 묻어나는 러시아・중앙아시아가 주요 배경이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 이를 상영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이 지역에 대한 친밀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영화 속 배경이 되는 공간을 후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부흥시키고 이를 문화예술기행 상품으로까지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스토리를 과거 유산으로 그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성의 창조적 질료로 새롭게 부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52) 리용득 엮음, 『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 도서출판 역락, 2016.

www.kci.go.kr

참고문헌

강현모,「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홍범도 서사담 연구」,『민속연구』 제36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

고송무,『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김세일,『(역사기록소설) 홍범도 1~5』, 제3문학사, 1989.

김현주,「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한민족어문학』 제79권, 2018.

리길수,「조선극장」,『오늘의 빛』, 알마아따: ≪자수싀≫, 1990.

리용득 엮음,『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 도서출판 역락, 2016.

문금동,『아부지와 홍범도』, 현대문화사, 2017.

박병은,「극동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 고려인 사회와 고려인문화센터에 관한 고찰」,『글로벌문화콘텐츠』 제38호, 2019.

박영은,「고려극장에서 상연된 중앙아시아 희곡의 역사・문화・예술사적 지형도 연구」,『슬라브학보』 제34권 2호, 2019.

박영은,「러시아 극동 한인문학의 정초(定礎)와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노어노문학』 제29권 4호, 2017.

반병률,『홍범도 장군: 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한울아카데미, 2019.

송정란,『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유민영,「희곡평/소박한 역사기록극」,『한국연극』 제155호, 1989.

이동순,『홍범도 1~10』, 국학자료원, 2003.

이정선,「연극으로 재현된 까레이스키와 그 삶의 명암: 중앙아시아 고려인 희곡문학 작품에 붙여」,『중앙아시아 고려인 희곡문학 작품집: 까레이스키 공연예술의 꿈』, 국제한인문학회 엮음, 국학자료원, 2012.

임형모,「홍범도를 매개로 하는 체제 옹호의 정치 서사 연구－장편소설 홍범도에 투사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9권 3호, 2018.

정상진,『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조규익,『CIS 지역 고려인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최혜실,『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2007.

홍범도,「원쑤를 갚다」, ≪레닌의 긔치≫, 1941년 11월 7일자.

Ким, Иосиф.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θнер>, 1982.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18010005762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1955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481

www.kci.go.kr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view/120978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656662262241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동순, 「홍범도 장군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전형(典型)」, 논객닷컴,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16

파이낸스 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63

www.kci.go.kr